창간특집 I 생활속에 피어나라 연꽃처럼

오계 불자 108명에게 들어보니…

"사회가 바로 오계 실천장 돼야"

다른 나라 오계

오계는 부처님 당시부터 중히 여겨온 계율이다.오늘날에는 재가신자의 기본계율로 각 나라에서 수지하고있다. 인도의 경우 오계는 불교뿐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등에 판차실라(Pancasila)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오계가 종교를 초월하여 국민의 생활지침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등의 남방불교국가에서는 오계가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오계가 생활과 일치되어 기본도덕규범으로 여겨진다.

태국의 경우 '마이 펜 라이'(Mai Pen Rai)라는 말을 자주

종교초월한 생활규범 남방불교국 적극실천

쓴다. '천만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오계가 생활화 되어 있어 정신속에 언제나 '마이펜 라이'가 살아있는 것이다. 행여 주문한 음식속에 벌레가 들어 있어도 '마이 펜 라이,'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쳐도 마이펜 라이를 연발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미덕은 오계가 종교적 덕목에서 사회윤리적 강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생활속에 살아있는 계목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티벳불교에서는 밀교교리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 여기에서는 수행이 곧 오계의 계율 역할을 하고 있어 오계의 실천이 적극적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 대만, 일본등의 대승불교권 국가에서는 오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다소 뒤떨어져 있다는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오계의 수지 및 실천이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편이다.

오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계식을 통해 불명과 함께 계를 받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계식에서 연비를 통해 계를 받는다.

'세계의 곳곳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현상,또는 일어날 조짐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오계를 수지,실천하는 길뿐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계는 인류의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천인공노할 엽기적 사건들이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음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아녀자들은 길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 지존파, 온보현등 일련의 살상 사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행은 받들어 행하여야 하고 일체의 악행은 절대로 짓지 않게 하였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고 하였다. 자정능력이 쉴새없이 활동하여야 한다. 마음은 자정력이 있을때 마음이라 한다. 자정능력이 탈진하면 무분별한 악행이 만연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맑아야하고, 싱그러워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찰나찰나 상념의 번뇌가 일어날 때 가차없이 단멸하는 자정력이 발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 증오가 조건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살다보면 언쟁, 논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여 싸움질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존파나 온보현은 이런한 일차적인 시비의 덫을 거치지 않고 마구 살행하는 악마심이 준동하였다니 … 사람은 최소한의 사람되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사람되기를 포기하면 인비인인 것이다.

세상이 날로 황폐해 지고 있다. 늘어나는 범죄는 잔인해 지고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두꺼워져 어느때 보다도 계율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본지는 우리 삶의 기본윤리인 오계를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108인에게 들어보았다. 그 대답을 본지에〈일기쉬운 불교〉를 연재할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분석했다.

<설문 내용>

1. 당신은 오계를 받았습니 까? (받았다 71%)
2. 오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계입니까? (죽이지 말라 58%)
3.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계는 어느 것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46%)
4.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쉬운 계는 어느 것입니까? (훔치지 말라 33%)
5. 당신은 왜 오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불자된의무 23%)
6. 낙태는 불살생계를 파하는 것일까요? (그렇다 70%)
7. 오계를 못지키는 것은 자의적인가 아니면 타의적일 때가 많은가? (자의적이다 57%)
8. 오계 가운데 타인에게 권하고 싶은 계가 있다면? (거짓말 하지 말라 50%)
9. 오계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의향은 있습니까? (확산시키겠다 94%)
10. 실생활에서 오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100점 만점) (평균 60점)

목 정 배 <동국대 교수>

- 1937년 경남 사천 출생
-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 졸업
- 동국대 교수,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사)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
- 저서 :〈삼국시대의 불교〉〈불교사 입문〉〈승민경〉 등 다수

살생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자

도둑질하지 말라

보시행을 하자

사음하지 말라

바른 사랑을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된 말을 하자

술 마시지 말라

늘 깨어 있어라

"거짓말 말라"가장 지키기 어려워
나의 5계 실천점수 평균 "60점"

세상이 이처럼 흉흉할 때 불교인 108인에게 불교의 기본계인 오계를 설문하여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향방하고 있는가를 점지해 본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계율을 크게 나누면 작지계와 지지계가 있다. 작지계는 선한 행위를 찾아나서서 언제든가 선업을 실천하자고 맹세하는 덕목이고, 지지계는 악한 행위를 만나면 악업을 행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작지는 선행의 권장이고, 지지는 악행을 금지하는 조목이다. 불교에서는 악행을 금지하는 일면 선행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오계설문을 10가지로 내었고 또한 주관적 답안을 추출하였다.

하나, 당신은 오계를 받았습니까의 질문에 108명 중 71%가 오계수지로 나타났다. 불교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질문을 하였기에 108명중 77명은 수계자이고, 31명은 미수계로 판명되었다. 사찰에는 비불자의 출입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출입자는 불교인이고 수계자가 71%라는사실은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둘, 오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불살생이 63명이다. 58%를 차지 하였다. 이것은 인명경시의 사건이 일어났던 추석 이후에 설문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보다 방생법회의 행사가 살생의 죄악을 체험하게도 하였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생의 자부라는 말이 깊은 뜻을 내포하였을 것이다. 태·난·습·화의 모든 생명이 하나라고 강조하는 불교교설이 모든 불자들에게 생명을 아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양되었으리라 본다.

셋,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한 대답으로 불망어계가 46%나 되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신용이 앞서야 한다. 사회구조가 신의의 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신용이나 믿음이 결여하려고 노력하는 듯하다. 무소유 무아집 무집착의 공부가 잘 되면 남의 물건에 대하여 별다른 애착이 없어진다. 극미한 물건에 대해서 부러움이 일어서 최소한의 의무 23%였다. 불교인의 사고 속에 내재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가 바로 오계를 수지하는 것으로 판명된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 당신은 왜 오계를 지켜야 하는가의 단답식 질문에서 여러형태로 답을 해주고 있다. 즉 부처님께 귀의했기 때문에 13%, 정직하게 살기위해 4%, 대승적 보살행을 위해 14%, 제일 많은것이 인간으로 되면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생활속에 야기되는 거짓말, 속임수, 사기등이 사람이 사는 관계를 어둡게 한다. 불교인이 수계한 다음에도 망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하여도 되돌려 참회하고 정직한 언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쉬운것에 대한 답은 불투도였다. '훔치지 말라' 이것이 33%로서 비교적 양심적인 생활을 나지 않으면 소유욕이 생기지 아니한다. 최소한의 소유심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불교인은 자급자족 자수용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이다.

다섯, 당신은 왜 오계를 지켜야 하는가의 단답식 질문에서 여러형태로 답을 해주고 있다. 즉 부처님께 귀의했기 때문에 13%, 정직하게 살기위해 4%, 대승적 보살행을 위해 14%, 제일 많은것이 인간으로 인간은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결단으로 의무가 있어야 한다. 선행을 본분사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악마적 인간의 권리는 타지육하는 것이 업과이다. 선행의 의무에서 복덕을 향수 할 수 있는 과보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여섯, 낙태는 불살생계를 파하는가의 질문에 가장 많은 긍정의 대답이 나왔다. 긍정 76명, 아니요 27명, 상황에 따라 3명, 무응답 2명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다. 지금 낙태 임신 중절이 법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비하여 불교인은 낙태문제에 대하여 과감히 불살생계를 파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것은 생명외경, 생명존엄의 확고한 관념을 확립하였다고 본다.

일곱, 오계를 못지키는 것에 대하여 자의적이라는 대답을 57%로 주었다. 사실 타의적 강권에 의하여 지율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언제나 자정능력을 스스로 지키는 자의적 계율관이 중요한 것이다.

여덟, 오계를 권장한다면 불망어를 준수케 하려는 뜻이 50%나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신용사회, 믿음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뜻이 품겨져 있어 다행한 것이다.

아홉, 오계는 사회적 실천덕목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94%나 되었다.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오계의 사회성이 밝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앙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열, 끝으로 오계 실천에 대하여 평균 60점이 나왔다. 이것은 중품적 청정사회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품청정극락이 되게하기 위하여 계율의 자율성이 못 선행을 실천하는 길임을 자각하여야 한다.윤리와 도덕이 매몰된 사회는 앙굴마가 악마의 탈을 쓰고 너와 나를 바로 도륙시키려고 칼 도끼를 휘두르는 사회다. 우리는 오계수행으로 청정세계를 만드는 맑고 싱그러운 마음의 불자가 되어야 한다.

FM101.9MHz

창간 현대불교신문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101.9MHz
BBS 불교방송에 귀기울이면
더불어 살아가는 멋을 느낄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불교방송은
이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편안한 사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부처님의 작은 등불 하나라도
너와 내가 소중히 밝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갈등도 괴로움도
모두 사라지고 자비의 법음(法音)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 갑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705-5111~4